# 양궁 안산·최미선 태극마크 '명중'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 3·4위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 획득 남구청 이승윤 아쉬운 6위 '불발'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광주여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손에 쥐었다.

안산은 21일 원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 양 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110.20점을 기 록, 1차 평가전 110.10점을 합산한 합계 220.30점 으로 3위를 차지했다.

2022년도 태극마크를 달고 부활한 최미선(순천 시청)은 합계 220.42를 기록, 4위에 자리하며 4위 까지 주어지는 최종 엔트리에 합류했다.

이들은 아시안 게임에 첫 출전하게 됐다.

여자부 1위는 이가현(대전시체육회), 2위는 강 채영(현대모비스)이 이름을 올렸다.

남자부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한 김우진 (청 주시청), 김제덕(경북일고), 오진혁(현대제철)이 건재를 과시하며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마지막 한자리는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에게 돌아갔다.

기대를 모았던 이승윤(광주 남구청)은 마지막 날까지 피말리는 승부를 펼쳤지만 6위에 머물러 태 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안산(광주여대·가운데)과 최미선(순천시청·오른쪽)이 21일 원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 양궁 국가 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국가대표를 확정한 뒤 스승인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양궁협회 제공〉

## 광주시청 모일환 200m '금빛 질주'

### 전국종별육상선수권 1위 조선대 김명하 멀리뛰기 우승

광주시청 모일환(23·사진)이 21일 대구스타디 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에서 1위로 골인했다.

모일환은 남자일반부 200m 결승에서 21초08로 우승했다. 21초65의 기록으로 예선을 통과했던 모 일환은 결승에서 200m 한국신기록(20초40) 보유 자 박태건(강원도청)을 제치고 우승했다. 박태건 은 21초33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

자 200m에서 21초15로 우승했던 모일환은 기록 단축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다.

05로 4위에 머물렀다. 김명하(조선대·4년)는 남자대학부 멀리뛰기에

여자 200m에 나선 한정미(26)는 결승에서 25초

서 7m54로 우승했다.

김명하는 2차 시기에서 7m54에 성공, 일찌감치 1위를 확정했다. 2위는 7m39의 김민수(한국체 대), 3위는 7m37의 이현우(부산대)가 차지했다.

장흥군청 김장우(23)는 남자일반부 세단뛰기에 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1차 시기에서 15m91 을 뛴 뒤 2차 시기에서 16m50에 성공, 1위를 확정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체고 양예빈 "아! 부정 출발"

10개월만 개인경기 '부담 느꼈나' 400m 실격···같은 팀 최지선 우승

10개월 만에 400m 개인 경기에 출전한 한국 육 상 여자 단거리 샛별 양예빈(18·전남체고·사진)이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 출발로 실격당했

양예빈은 2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전국종 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고등부 400 m 결선에 나섰 지만, 총성이 울리기 전에 몸을 내밀었다.

세계육상연맹은 2010년 1월부터 '단 한 번의 부 정 출발이 일어나도 바로 실격한다'고 규정을 강화 했다. 한국육상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오전 예선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1분00초39, 전 체 1위로 결선에 진출한 양예빈은 4번 레인을 배정 받아 출발선에 섰다. 그러나 부정 출발로, 레이스를 펼치지 못하고 트랙을 떠났다.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7월, 55초 29의 400 m 한국 여자 중학생 기록을 세웠다. 55초 29는 한국 여자 성인 선수들을 합해도 역대 1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하지만, 양예빈은 고교 진학 후 부상과 부담 속에 중학교 시절에 만든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못 했다. 고교 입학 후 양예빈의 400 m 개인 최고 기록 은 56초63이다. 지난해 전남체고로 전학하며 새로 운 학교에 적응하는 동안 양예빈은 계주 종목에만

아직 100% 몸 상태는 아니지만, 양예빈은 올해 다시 개인 종목에 출전하기로 했고, 종별선수권 400 m 개인전 출전 신청서를 냈다.

양예빈이 지난해 6월 25일 18세 미만 한국육상 경기대회 400m 결선 이후 10개월 만에 개인전 결 선 경기를 치르면서, 국내 육상계의 시선이 집중됐

그러나 실격으로 양예빈이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양예빈이 중학교 시절 기량을 회복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예빈이 실



격당한 후 열린 여고부 400m 결선에서는 최지선 (전남체고)이 58초59로 우승했다. 2위는 59초40 의 손한송(경남체고)이 차지했다.

## 유석우 협회장의 '핸드볼 사랑'

스포츠 인재 육성 기금 1000만원 조선대에 전달 등 저변 확대 도시공사 핸드볼팀에 준 격려금, 학교와 나눔 등 선한 영향도



유석우(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이 지난 18일 조선대 본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조선대 민영돈 총장에게 '스포츠 인재 육성'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유석우(43·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시핸드볼 협회장의 핸드볼 사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 18일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조선대 민영돈 총장에게 '스 포츠 인재 육성'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선대 핸드볼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발전, 인재양성을 위해서다. 조선대학교 산하(조대 여중·조대부중·조대여고·조대부고) 핸드볼선 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한 데 이어 두번째 기부

광주 경기단체장 가운데 최연소 수장인 유 회장은 2017년 제2대 광주시핸드볼협회 회장 으로 선출된 이후 핸드볼 저변확대를 이끌고

그는 광주도시공사핸드볼팀의 정규리그 준 우승에 기여한 숨은 주역이다. '유 회장을 만나 려면 광주도시공사가 경기를 치르는 곳으로 가 라'는 얘기가 핸드볼계에서 나온다.

최근 도시공사 핸드볼 선수단에 준우승 축하 격려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선수단 버스 운 전기사에게도 축하금을 건네는 등 살뜰히 챙겼

도시공사핸드볼팀은 학교 핸드볼팀을 방문, 상금의 일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유 회장 의 격려가 나눔의 선순환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는 핸드볼의 씨앗인 학교체육에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광주시핸드볼협회와 광 주시교육청, 대한핸드볼협회가 주관한 제10회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를 개최했 다. 각종 지역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핸드볼 선수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

유석우 회장은 "핸드볼 협회장으로서 당연 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태권도품새대회 우크라 남매의 절도있는 발차기



21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우크라이나 다비드 하브릴 로프(14)와 예바 하브릴로바(12) 남매가 페어 경기에 출전해 절도있는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 LOTTE CINEMA I 충장로관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로스트 시티

3관 │ 신비한동물들과덤블도어의비밀,수퍼소닉2

4관 공기살인

5관 앵커

6관 공기살인

9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모비우스, 4월은 너의 거짓말

8관씨네커플 앵커, 스텔라

GAC기획공연 포커스 해피 해프닝 일시: 2022.05.01.(일)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2022.04.27.(수)

